

이제부터 입시전쟁... 효율적 전략 세워야

가채점 끝났다면 엄격한 기준으로 결과분석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여부 빨리 결정 내려야
정시 대학별 반영방법 분석 맞춤 전략 수립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본격적인 대학 입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대입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치밀하게, 더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 전략의 출발점은 '가채점'이다. 하지만 성적이 확정 발표되기까지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한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채점하고 그 결과를 냉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좋다.

정유훈 교사(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과장)는 "이번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단순한 원점수를 갖고 판단하지 말고 현재 예측하고 있는 예상

등급컷을 기초로 자신의 백분위, 등급 등을 예측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정 교사는 수시 전형에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하면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자신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 수준 대학을 판단하고 수시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 응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시 전형의 경우 대학별 반영방법에 유의해 미리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다.

정 교사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학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 입시 전쟁이 시작되면서 대입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라일보DB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합산해 선발하고, 전형요소별 반영방법이 대학마다 다른데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 교사는 "대학과 학과에 따

라 수능 시험 영역별 반영비율이 다른 만큼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이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을 유리하게 반영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은지기자

제주 수능 부정행위 1건 또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제주지역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1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4교시 응시방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제주사대부고(제9시험장)에서 한 학생이 4교시 탐구영역 때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놔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학생은 부정행위 사실이 확정되면 당해년도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수능 전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수능 전체 부정행위 중 절반가량이 '4교시'에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2건 모두 4교시 응시방법 위반에 따른 만큼 수험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갈퀴·작살 등으로 어패류 잡지 마세요”

법령으로 정한 방법·장비 외 사용은 불법
채취 금지 장소·금채기간 숙지하고 지켜야

물때에 맞춰 바닷가나 갯벌을 돌아다니며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 문어나 소라 등의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수산물 채취 장소나 시기, 사용 가능한 장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해수면) 제18조에 의해 어업인이 아닌 경우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투망이나 외줄낙시, 외통발, 갈고리, 호미 등이 아닌 가프(갈퀴)

나 작살 등을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해서는 안 된다.

또 장비 불법 사용 외에도 수산물 금채 기간이나 수산물 채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허가된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가을철 지역주민이나 관광객 등을 중심으로 문어 해루질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산물 포획 시 사용가능

한 장비나 장소·금채 기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바닷가에서 펜션을 운영중인 박모(39)씨는 "손님 중에 바닷가에서 (어떤 장비 사용해) 수산물을 잡아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한다"며 "일부 손님 중에는 금지 구역 등에서 수산물을 잡다가 어촌계나 해녀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관련 관광객은 물론 도민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홍보 및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훼손되거나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훈종기자 chj@ihalla.com

한라산-제주소주 '올레' 분쟁 일단락

제주지법, 제주소주·전 대표이사에 벌금 500만원

'올레' 상표를 둘러싸고 (주)한라산과 (주)제주소주가 3년여간 벌인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제주소주와 전 대표이사 문도(74)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주)제주소주가 2014년부터 '올레'라는 상표가 부착된 360ml 소주를 출시하면서 촉발됐다. 이 소주는 2014년 8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4일까지 약 22만병·1억1057만원 가량이 판매했다.

'OLLE 올레' 상표를 소유하고 있던 (주)한라산은 해당 소주가 출시되기 전 (주)제주소주에 등록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주)제주소주는 특허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올레라는 등록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는 대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올레 상표를 부

착한 소주를 판매하면서 이듬해인 2015년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주)제주소주는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며 법원에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주)제주소주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아울러 (주)제주소주는 변호사의 구두 자문을 듣고, (주)한라산에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회신문을 보낸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제주소주가 등록상표를 침해한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판매한 소주의 양도 약 22만병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주)한라산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3500만원을 (주)제주소주로부터 받고 화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겨울 재촉하는 가을비. 쌀쌀한 기온과 간간히 빗방울이 흩뿌린 18일 제주시 용두암을 찾은 관광객들이 두터운 패딩차림으로 관광을 즐기고 있다. 강희범기자

제주시 아기출생카드 발급건수 매년 증가

제주시가 출생 후부터 만 24개월 이하 아가까지 발급하는 아기출생카드가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행복 민생시책으로 추진하는 아기출생카드 발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아기출생카드 발급건수는 2015년 1492매에서 2016년 2047매에 이어 지난해엔 2155매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도 10월 말 현재 1740매가 발급되어 월 평균 180건으로 2015년도 월 12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출생카드는 제주시에서 탄생한 아기의 신분증으로, 사진과 함께 생년월일, 주소, 부모 이름, 예방접종시기 등 13개 항목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시기별 예방접종 항목이 수록되어 있어 예방접종 예약 뿐만 아니라 병원진료, 보험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확인 대신에도 활용 할 수 있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신생아를 둔 부모와 아기들에게는 출생기념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다.

아기출생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드론버스는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제·드론판매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 (필기시험 면제)

AGRICULTURE DRONE

농약살포 대행 해드립니다

064-746-7277 (24h 상담)

제주지역 기름값 가장 많이 내렸다

유류세 인하후 ㄹ 당 170원 ↓

정부가 주유소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한 뒤 제주지역이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펜넷'에 따르면 이날 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ㄹ 당 1555.60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직전인 지난 5일 가격 1690.3원에 비해 134.7원이 인하됐다.

경유도 1406.97원으로 지난 5일에 비

해 88원 가량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유류세가 인하되기전인 지난 5일 휘발유가격은 1733.06원에서 다음날 1656.35원으로 76.71원 내린 뒤 18일 기준 1563.12원을 기록하고 있다. ㄹ 당 170원포인트 169.94원 내린 셈이다.

17일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인하율 137.7%로 최고인 가운데 대전(121.6%, 149.6원), 인천(115.4%, 142원), 충북(114.9%, 141.3원) 순으로 많이 내렸다.

제주도내 주유소별 휘발유 가격은

가장 싼 곳이 1539원이었으며, 190여개 주유소 중 140개 정도가 156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유 역시 ㄹ 당 1557.94원에서 1455.7원(17일 기준)으로 102.42원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1462.72원, 서귀포시는 1440.41원을 기록하고 있다.

기름값이 인하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유목민'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펜넷은 "국내제품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효과로 인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선거방송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 받으세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액 세액공제 | 이하 10만원 초과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정치후원금센터 give.go.kr